

OECD DAC, 프랑스 동료검토 결과 발표

1. 프랑스 동료검토(Peer Review)* 개요

* OECD DAC는 개발협력의 효과성 향상, 개도국과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시행현황을 4~5년 단위로 동료 회원국과 점검

- OECD DAC는 '18년중 2개 회원국(네덜란드, 룩셈부르크) 대표와 프랑스 동료검토를 실시하고, '18.9월 프랑스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
 - 5년만에 실시된 동료검토로서, 지난번 검토의 권고사항 이행을 평가하고, 프랑스의 개발협력 전반을 점검하여 새로운 권고사항 제시

2. 프랑스 동료검토 주요내용

- ('13년 동료검토 이행평가) '13년 동료검토시 도출되었던 17개 권고사항은 이행완료(3개), 부분이행(10개), 미이행(4개)으로 평가됨
 - (이행완료) 취약국에 대한 Action plan 마련, AFD 인적자원 관리 강화 등
 - (부분이행) 중점 분야에서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체계 구축, ODA/GNI 비율 0.7% 달성을 위한 방안 수립 등
 - (미이행) 인도주의적 원조 예산 확대, 수원국에서 중점분야 축소 등
- (프랑스의 개발협력 평가)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프랑스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
 - '16년 ODA/GNI 0.38%*(순지출 기준 96억불, 총지출 기준 117억불**)에서 '22년 0.55%로 ODA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
 - * DAC 29개 회원국 중 규모기준 5위, ODA/GNI 비율기준 12위 기록
 - ** 양자 74억불(유상 33억불, 무상 41억불), 다자 43억불
 - 기후변화를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며 파리협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

□ (분야별 점검) 지속가능개발, 비전 및 전략 등 7개 분야를 검토 후 현황 및 문제점 분석

- (지속가능개발) 글로벌 리더국가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중이나, ODA 확대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지지는 부족한 편
- (비전 및 전략) ODA 지원액의 50%를 우선지원국에 지원 약속 하였으나, '16년 기준 상위 10개 수원국 중 우선지원국은 없음
- (개발재원) '22년까지 ODA/GNI 비율 0.55%로 제고하는 ODA 확대 계획 발표는 긍정적
- (조직구조) 'Expertise France'* 설립 등 지속적 체계 개편중이나, 조직체계가 여전히 복잡
 - * '15년 6개 기술협력기관을 통합·설립한 기관으로 '19년 AFD에 통합 예정
- (지원수단 및 파트너) 양자원조 비구속성 비율이 96.3%*에 달하고,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이나, 국별협력 프로그램 미작성으로 수원국과의 협력상황 파악이 어려움
 - * 높은 비구속성 비율에도 불구하고, 프랑스 기업 수주율은 40%
- (성과관리/평가) '13년 31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, 프로젝트 성과평가에만 한정적으로 적용중
- (인도주의적 지원)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실제 인도적 지원은 '16년 전체 ODA 집행의 1.3%에 불과

□ (권고사항) 분야별 점검 후 13개의 권고사항 제시(상세내역 첨부 참조)

- (목표와 실행 일치) 최빈국 지원 확대,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 등 ODA 정책 목표와 실제 시행간의 괴리 개선 요구
- (AFD 관련) 프로젝트 지원시 절차 단순화, Expertise France 통합 준비 등 AFD의 역할 강화
- (인력 확충 등) ODA 관련 인적자원 확충, NGO 지원 확대, 국별 협력 프로그램 작성, 다자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

3. 시사점

- 프랑스는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선도적 역할*을 수행하여 타 DAC 회원국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
 - * 프랑스는 기후변화를 중점지원하고 있으며, '16년 DAC 평균 ODA/GNI 비율 (0.32%)를 초과하는 0.38% 기록, '22년까지 0.55%로 ODA 확대 결정
- 우리나라는 '17년 ODA/GNI 비율 0.14%를 기록하였으며, DAC 평균에 근접하기 위해 동 비율을 지속 확대* 추진
 - * 0.14%('17년 잠정) → 0.20%('20년 목표) → 0.30%('30년 목표)
- 프랑스는 수원국, 다자기구, NGO, 민간부문 등과의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유상차관, 무상원조(기술협력 포함) 등 다양한 형태의 ODA를 효과적으로 지원
 - '16년 프랑스 유상차관은 양자 ODA의 4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특히 AFD는 유상차관이 연간 양자 지원액의 73%를 차지하는 등 금융협력 위주의 ODA 시행
- 동료검토 권고는 강제이행사항이 아니므로 DAC 회원국은 각국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이행
 - 프랑스는 '13년 17개 권고사항 중 3개를 이행하고, 10개를 부분이행
 - * 우리나라는 '12년 24개 권고사항 중 8개를 이행하고, 13개를 부분이행하여 권고사항을 비교적 충실히 이행
-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기반을 바탕으로 비구속성 사업에도 자국 기업의 사업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됨
 - 비구속성 비율(96.3%)은 매우 높은 수준*이나, 프랑스 기업 수주율이 40%에 달하는 등 ODA 사업에 자국 기업 참여 활발
 - * '16년 DAC 회원국 평균 비구속성 비율 : 81.3%

첨 부 : 2018 프랑스 동료검토 권고사항

자 료 : 2018 France Peer Review (Sep. 2018)

CICID Statement of conclusions (February 8, 2018)

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('15.11월, 국제개발협력위원회)

프랑스에 대한 DAC 동료검토('18.9월, OECD DAC 주재원)

작 성 : 선임심사역 조 은 진, ejcho@koreaexim.go.kr

- (1) France should set out a strategy for achieving an ODA/GNI ratio of 0.55% by 2022 – and 0.7% by 2030 – in order to meet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.
- (2) France should adopt a holistic, balanced approach to crises, while maintaining the fight against poverty as its primary ODA objective, alongside the principle of humanitarian action.
- (3) AFD should continue to adjust its procedures in the interest of greater efficiency.
- (4) The financial resources earmarked for gender equality in French ODA programming should be increased to demonstrate its commitme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.
- (5) France should strengthen its strategic dialogue with its multilateral partners while ensuring the coherence of its national policies and the effectiveness of its partnerships.
- (6) In line with its commitments, France should concentrate its aid on a limited number of sectors – where it has added-value – in its partner countries.
- (7) France should set up a governance mechanism to foster policy coherence.
- (8) France should increase the volume of ODA provided as grants to priority countries (which are all LDCs, including a large number of fragile countries). At the same time, France should ensure that the financial effort indicator that guide its geographic allocations reflect its strategic co-operation priorities, including LDCs, fragile countries and the Sahel.
- (9) France should increase the proportion of bilateral aid it channels to and through local and international NGOs.
- (10) As Expertise France integrates into the AFD Group, France should clearly state its economic model and its position in the French co-operation system, both in Paris and in the field
- (11) France should improve the strategic management and oversight of its co-operation, with clearly defined mandates backed up by the necessary human resources.
- (12) To facilitate the management of its development co-operation, France should prepare country strategies covering all of its co-operation activities with its priority partner countries, preferably within the framework of EU joint programming.
- (13) France should develop results-based management and integrate it across its entire development co-operation programme, so as to ensure that the findings (at project and corporate level) are used to improve accountability, steering, communication and learning.